운전자·보행자 안전의식 교육
취약한 교통 인프라 개선 시급

⑧ 교통사고 줄이려면

신호 등 교통법규 위반 경찰 지속적인 단속을

광주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낮은 교통안전 의식과 취약한 교통 인프라 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꾸준한 교통안전의식 교육과 함께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이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천301건으로 64명이 숨지고 6천90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천869건(사망 62명, 부상 6천386명)보다 10%(432건) 증가한 수치다.

사고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5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512건, 중앙선 침범 252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결여가 교통사고의 주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운전자의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이 개선돼야만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운전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교통안전 의식 교육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노인 등 보행자들의 안전교육도 시급하다. 올해 상반기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는 292건, 노인 교통사고는 350건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의 목소리도 높다.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표지판 설치와 안전펜스, 신호체계, 도로 구조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올 들어 6월 말 현재 광주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서구 유덕동 계수 사거리와 쌍촌동 운천 사거리로 각각 36건이 발생했다.

사고 다발지역임에도 이곳은 경고 표지판이 없고 안전펜스도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를 방치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경우 교통량과 교통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 구분을 위한 방호 울타리나 구름다리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강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나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과 함께 사고다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전통문화 예절학당 캠프 광주시 서구문화센터는 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서창 향토문화마을에서 '전통문화 예절학당 캠프'를 개설했다. 캠프 첫날인 5일 한복 차림의 초등학생 40명이 향토문화마을 누각에서 강사로부터 전통예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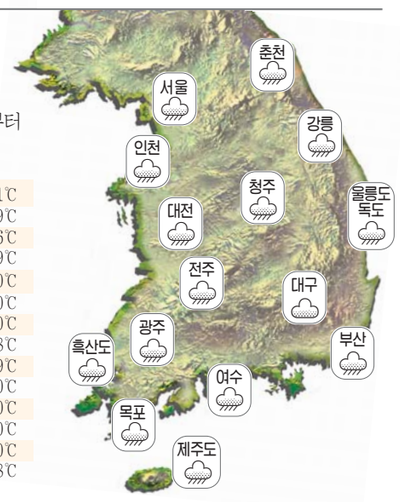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5분 해짐 19시 31분 달뜸 19시 34분 달짐 05시 41분

태풍 북상

제8호 태풍 모라꼿(MORAKOT)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3/31℃
목 포	흐리고 비	23/29℃
여 수	흐리고 비	22/26℃
완 도	흐리고 비	22/29℃
구 례	흐리고 비	21/30℃
해 남	흐리고 비	23/30℃
장 흥	흐리고 비	22/30℃
고 흥	흐리고 비	21/28℃
순 천	흐리고 비	22/29℃
영 광	흐리고 비	22/30℃
진 도	흐리고 비	23/30℃
전 주	흐리고 비	22/30℃
남 원	흐리고 비	21/30℃
흑산도	흐리고 비	22/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먼바다	북동~동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4.0m
먼바다	북동~동	3.0~4.0m

	밀물	썰물
목포	02:38 14:26	07:54 19:49
여수	09:10 21:46	03:19 15:1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날 씨						
최저/최고	25/30	23/31	23/31	23/32	23/30	23/29

광주과기원 '옹달샘 보내기 프로젝트'

아프리카·동남아 확대

수질오염이 심한 해외에 정수시설을 지원하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옹달샘 보내기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까지 확대된다.

광주 과기원은 5일 "옹달샘 보내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환경공학과가 자체개발한 나노막여과방식 정수시스템을 아프리카 수단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옹달샘 보내기 프로젝트'는 광주과기원 환경공학과가 자체 예산과 웅진케미컬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정수장치를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사업이다.

광주과기원은 '옹달샘 정수기'라 부르는 정수시설을 최근 천주교 수원교구청 문희종 신부에게 전달했으며, 이 정수기는 수단의 오지 아강그리알마을 우물가에 설치된다.

문 신부는 수단에서 봉사활동 중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다가 광주과기원 환경공학과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수기는 자전거 페달로 구동할 수 있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낙후지역이나 오지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1분당 2ℓ의 물을 정수할 수 있다.

광주 과기원 환경공학과는 지난 2006년에도 두산중공업의 협력을 받아 자체 개발한 정수시설을 캄보디아 시엠립에 무상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북수단에 해수담수화사업단의 도움으로 옹달샘 정수기를 전달했다. 웅진케미컬은 정수장치 내부에 들어가는 막을 무상 제공했다.

옹달샘 프로젝트 팀장인 김경웅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지사정을 반영해 점차 정수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아프리카 외에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전임교원 공채 심사 강화

전남대의 전임교원 공채 심사가 엄격해졌다. 전남대는 최근 23개 분야에 23명 선발을 목표로 전임교원 공채에 나섰다. 이번 공채에는 무려 144명이 몰려 평균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전남대는 철저한 면접을 통해 대다수를 탈락시키는 바람에 목표치 절반 수준인 14명만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서류심사 및 전공심사에서는 18명만이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5일간 진행된 면접심사 결과 또다시 4명이 탈락하고 14명만이 최종합격했다.

전남대는 특히 통과의례 정도에 그쳤던 면접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지원자 1인당 면접시간 1시간을 배정해 강도 높은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합격 점수를 줘야 면접심사를 통과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군 비리 연루 의혹 前 부지사 등 7명 무혐의

광주지검은 5일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입건된 전 전남도 부지사 손모(66)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05년 조모(54·구속)씨를 국고보조금 사업인 파프리카 가공공장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돕고 주유소 부지를 실비로 매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파프리카 사업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함께 입건된 전 화순군 부군수 최모(60)씨, 화순군 과장 안모(55·5급)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